

[참고 자료-1]

허니웰(Honeywell) 프로젝트

번역 정리 _ 최정민(무기제로팀)

- 허니웰사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해 있음. 이곳에서는 집속탄, 강철셀 안에 패킹되어 있는 소형강철볼베어링을 생산. 이러한 대인살상용 무기가 폭발할 때 강철 볼베어링이 1초에 2,200개가 발사된다고 함. 이것뿐만 아니라 허니웰은 다른 무기, 공산품 등도 생산하고 있음.

- 사람들이 허니웰사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1967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전범재판에서 버틀랜드 러셀이 베트남 민중들을 향해 집속탄을 사용한 것을 비난한 것이었고 1968년 10월에는 스톡턴 린드가 해방잡지에 편집자주로 무기, 특히 베트남 전쟁과 관련 있는 무기들을 생산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감시하자고 사람들에게 주장한 것이었음.

- 1968년 12월 미네아폴리스 사람들, 허니웰 프로젝트 시작. 처음부터 그들은 그들의 목표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었다고 함.

- ▶ 집속탄과 다른 무기의 연구, 개발, 생산을 멈출 것
- ▶ 일자리를 잃지 않고 평화적으로 산업을 전환할 것

- 처음부터 비폭력적 실천을 했다 함. 이 프로젝트의 창시자들은 계급분석을 했고 노동자들이 아니라 이윤을 가져가는 사람, 의사결정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었다고 함. “5년 안에 못하면 아예 관두자”고 하면서 서로 독려했다 함.

-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6개월 동안 연구하고 회사 사무실과 공장의 지도를 그

리고 집속탄이 시민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겨누는 것이라는 거짓말에 초점을 맞춰 노동자들을 만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함.

- 비폭력정신으로 조직가들은 허니웰사의 이사회 회장을 만남.

- 집속탄이 생산되는 공장 2개 앞에서 리플렛을 나눠주기 시작함.

- 1969년 4월, 50명의 활동가들이 집속탄의 끔찍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허니웰사의 정기 주주총회장 바깥에서 시위를 벌임. 그들은 주주총회에서 10분간의 발언기회를 가졌고 회사 측의 답변은 “정부가 와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의무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함. 이 시위가 알려지고 조합 집행부와 진보적 시민들이 프로젝트를 찾았다 함. - 허니웰 프로젝트는 14개의 지역 그룹들을 조직했고 사람들은 주주총회에 주식들을 가져오기 시작함. 1970년 4월, 허니웰 프로젝트는 3,000명의 시위대를 조직하여 허니웰 정기주주총회의 안과 밖을 둘러쌌고 결국 14분밖에 회의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함. 반전운동의 이 새로운 전략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단도 그곳에 함께함.

- 스피치 투어는 다른 지역의 캠페인에 많은 영감을 줌. 1971년 두 개의 국가그룹이 허니웰사의 집속탄 제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캠페인에 들어감. 지역 조직에는 학교 캠퍼스에서 징집을 반대하기 위한 학생들과 평화적 전환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 집속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허니웰사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만듦. 회사는 보다 세련된 방식을 취함. 그들은 4페이지짜리 팸플릿을 제작했는데 그것은 허니웰 프로젝트가 제기한 모든 문제에 관한 답변이었고 전 세계의 100,000 노동자들에게 배포함. 그들은 시위대와 대화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메모를 노동자들에게 보내고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함. 허니웰사는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돈을 기부하기 시작했다고 함. 또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함. 허니웰은 어떤 압력을 분명히 받고 있었음.

- 1975년 4월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1975년부터 1980년까지 법정소송을 제외하고 캠페

인은 소강상태에 들어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허니웰 프로젝트 멤버들과 다른 지역 평화그룹들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공동모의를 했다는 것으로 허니웰사와 FBI를 고소함. FBI는 1969년부터 1972년까지 그룹 내에 프락치를 심어두었고 그것에 대해 인정했지만 어떤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발을 뺌. 이 사건은 1985년 종결되었는데 70,000달러의 피해보상금을 받았음. 허니웰 프로젝트는 ‘Shovels for Laos’라는 단체에게 돈을 기부했음.

- 1981년 허니웰 프로젝트는 다시 조직됨. 1982년 주주총회에서는 MX미사일 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장악했음. 1982년 허니웰 프로젝트는 또한 허니웰사가 이스라엘 군대가 베이루트를 폭력하기 위해 사용할 집속탄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함. 그해 36명의 사람들이 회사 본부 앞에서 비폭력행동을 하다 체포됨. 허니웰 프로젝트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함에 있어 참여적인 구조를 만들어 냄.

- 비폭력트레이닝 또한 매우 중요했다 함. 시위들은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음. 1983년 크루즈와 퍼싱 미사일의 서유럽 배치 전에 577명의 사람들이 하루 동안 본부를 폐쇄해 체포됨. 법정도 투쟁의 일부였음. 그들은 이러한 무기들이 만드는 손실에 관한 이슈를 제기할 수 있었고 1년 동안 법정을 묶어둘 수 있었음.

- 1982년부터 1990년까지 1년에 2번 허니웰 프로젝트는 비폭력시민불복종행동을 조직하였음. 그들은 집속탄 생산을 중단하고 경제적 전환을 결의할 것을 주주들에게 요구하는 편지를 씀. 그들의 전략은 국가적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는 한편 지역 조직에 근거한 것이었음.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가해지는 압력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

- 1980년대 그들은 유명 인사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활동을 알려나갔음. 언론의 관심도 좋았음. 물론 경제적 전환 문제에 대한 것보다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기는 했지만. “60분”이라는 미국의 매우 유명한 TV 뉴스에서 허니웰사의 부분을 촬영하긴 했지만 허니웰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부분을 삭제하라는 압력에 굴복해야 했다 함.

- 1968년부터 1975년 허니웰사 이사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은 허니웰 프로젝트와 만남을

가졌지만 그가 떠나고 취임한 새로운 CEO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 10년에 걸친 시위 때문이라 판단하고 허니웰 프로젝트와의 만남을 거부했다고 함.

- 1984년 허니웰사는 그들이 평화만들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평화만들기의 가능성(Prospect for Peacemaking)”이라는 포럼을 만듦. 그들은 다른 평화그룹과는 만났지만 허니웰 프로젝트와의 만남은 거부함.

- 무기 제조업체들은 다른 공산품들을 많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허니웰 보이콧 캠페인은 요구되지 않음.

- 1989년 허니웰사는 무기부서를 매각하려했으나 누구도 사려하지 않았음. 무기부서가 팔리지 않자 그들은 Alliant Tech Systems라는 다른 회사를 차림.

- 허니웰사는 무기부서 매각은 냉전의 종식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들에 달려있다고 말함. 아직까지는 무기부서를 해체하는 것보다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있음. Alliant Tech Systems은 세계에서 지뢰와 총알을 생산하는 가장 큰 기업임. 허니웰사는 시위대들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였음. 1995년 Alliant Action이 만들어짐.

- 허니웰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남겼음. 모든 사람들이 집속탄이 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무기들이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게 되었음. 이것은 이러한 무기 사용과 전쟁에 대한 반대를 가속화시켰음. 허니웰 프로젝트는 전쟁에서 기업의 역할을 가시화시켰고 다른 반기업 캠페인들의 모델, 특히 비폭력직접행동의 사용에 있어 모델이 되었음. 조직화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미네소타 지역의 강력한 진보운동을 발생시켰음.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집속탄의 생산은 계속되고 있음. 허니웰 프로젝트의 도전이 이러한 죽음의 시장을 끝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임.

“영구불변하는 전쟁경제를 감안할 때, 운동은 효과적으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나는 굴뚝 위에서 망가졌다…비참하게 내려왔다”

- 쌍용차 해고자 김정옥의 고백 (한겨레신문,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_6.12

쌍용차는 2009년 4월 2646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 하겠다는 방침을 쌍용차지부에 통보했다.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5월22일부터 평택공장 옥쇄파업에 들어갔다. 구조조정 대상자 가운데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회사는 나머지 980명을 6월8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김정옥에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6년을 싸웠다. 옥쇄파업을 했고, 단식투쟁을 했다. 삼보일배를 하고, 오체투지를 했다. 희망식당을 열고, 희망버스를 탔으며, 희망텐트에 모여 서로를 다독였다. 와락에서 함께 밥을 먹었고, 마음도 다스렸다. 법적 쟁송도 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 김정옥은 정책기획실장 이창근과 한겨울 70m 굴뚝에 올랐다. 김정옥은 89일, 이창근은 101일 동안 버텼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김정옥과 이창근은 상처를 입었다. 온몸으로 호소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이 안긴 상처이지만, 고립된 공간에서 각자의 인간으로 부대끼며 입힌 가해와 피해이기도 했다.

▲ 굴뚝 이후 쌍용차 지부와 거리 둔 이유

○ 조직의 경직성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시골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현대차 노조 얘기를 많이 해요. 다른 것보다 정년퇴직하면 자녀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단체협약 같은 거요. ‘세습을 하는 거 아니냐’, ‘1억 받는 노동자들이 자기들 것만 더 챙기려고 한다’고들 하세요. 집회 문화도 그래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 틀을 고집하잖아요. 가족들이 왔는데, 과격한 구호를 외치면 무섭다고들 말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세밀하게 손을 내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투쟁하는 사람들과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와서 밥도 같이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 쌍용차지부는 그런 걸 잘해오지 않았나요. 희망식당이 한 예죠.

“전체 노조에 대한 이야기지요.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처럼 힘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좀더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할 것 같아요.”

○ 싫증이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사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제 자신에 대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로 감정들을 다치는 것 같아요. 6년 동안 싸우면서 많은 분이 도움을 주신 덕분에 후원금에서 조금씩 생계비, 활동비를 사용하는데요. 건강이 많이들 안 좋잖아요.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배려는 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하게 배려를 할 수는 없어요. 배려의 범위를 자꾸 넓히면 조직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 쉬고 그러면 생계비를 까요. 그러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람을 고립시키기는 일도 있어요. 약한 사람을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자기가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각을 세우려고 못 싸우는 사람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도 버티고 버티다가, 떠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 어느 순간 그냥 ‘새가 되고 싶다…’

○ 굴뚝에서 고립감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고통스러웠나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여전히 커요. 가장 힘들었던 시간의 정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즐거울 때도 있었어요. 밥 먹는 시간이죠. 와락 식구들이 밥을 맛있게 정성들여서 마련해 올려준 게 보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즐겁죠. 그런데 힘겨움이란 건, 결국 조급함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됐을 때,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 호소하고, 회사 쪽에도 사정을 호소했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회사나 정부에 대해 잘 전달해보려고, 우리가 가진 고통은 외면하고 좋은 모습만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 힘이 들었어요.”

○ 고공농성중인 사람은 언제나 멀쩡하고 밝아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거군요. 아이콘이 됐으니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전에 고공농성했던 사람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저도 올라가 보니까 그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고립감은 솔직히 엄청났어요. 위에서는 막 몸부림을 치고 있고 뭔가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굴뚝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평온하잖아요. 그럼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김진숙 지도위원을 만나고 여전히 고공농성중인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차광호 대표와 통화도 했어요. 물어보니 두 사람도 똑같은 감정이에요. 불쑥불쑥 화가 난다고 해요.”

○ 화가 나는 대상은 누군가요?

“그게 좀 표현하기가 그래요. 대상보다는 상황인데요. 별거 아닌 일로 감정에 자극을 확 받는 거죠. 서운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굴뚝 가기 전에는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을 굴뚝 이후엔 아닌 것 같고, 그래요.”

○ 스마트폰으로 변하지 않는 세상을 전하는 뉴스를 보면서, 고립되어 별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 무력감이 컸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온기가 그리웠어요. 창근씨나 저나 직접 사람을 보는 게 절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스스로 더 강해져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 세뇌를 했죠. 대한문에 있을 땐 힘들면 기댈 수도 있고, 힘들다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굴뚝에선 아니었죠. 에스엔에스로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있는지 다 보니까요. 힘들다는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가 안 풀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죠. 특히 공장 안에 있는 동료들이 더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내부 반응은 나오지 않았어요. 차광호씨가 ‘100일 전후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무슨 생각이 든 건가요?

“60일쯤 지났을 땐가요.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왔다 가고,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8일 정도 곡기를 끊었어요. 교섭이 열리면서 급물살을 탈 것 같았는데 잘 안됐죠. 그러면서 ‘아, 내가 여기 있어도 잘 안 풀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냥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냥 ‘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굴뚝에 올라가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높이에 대한 느낌이 잘 안 와닿았어요. ‘여기서 뛰어

내려도 되는 것 아닌가.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냐' 이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확 들었어요. 그런 느낌이 4~5일 정도 왔어요.”

오랜 싸움으로 모두 아팠다. 굴뚝 위의 이창근과 김정옥도 아팠고, 그들을 대하는 지부 사람들도 아팠다. 지난 7일 공개된 고려대 김승섭 교수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쌍용차 해고자 142명 가운데 75.2%가 ‘지난 1년간 우울 및 불안장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불면증 및 수면장애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해고자도 72.2%나 됐다. 하지만 지난 6년 동안 쌍용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위한 정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창근은 2012년께 조울병 판정을 받았다. 달팽이관 이상으로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 이창근은 지금도 2주에 한번씩 정신과에 다닌다. 아침저녁으로 조울병 약을 복용한다. 두 달이 넘는 굴뚝 농성에도 쌍용차와 정치가 응답하지 않으면서 고립된 이들 사이에서 갈등만 극에 달했다. 이창근은 굴뚝에서 거친 말과 욕설을 쏟아냈다. 고립된 공간에서 김정옥은 공포를 느꼈다. 이창근은 최근 통화에서 “굴뚝 아래 지부와 굴뚝에 함께 있는 김정옥이 교섭과 외부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김정옥은 더는 굴뚝 농성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람을 살리려고 투쟁을 시작했는데 사람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부는 그 판단에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서로 생채기를 냈다.

▲ “창근씨가 아픈 줄 저도 몰랐어요”

○ 굴뚝에서 내려오는 과정에도 서로 상처를 입었나요?

굴뚝 후반기 이창근과 통화를 하면, 고양된 감정과 조급한 마음이 온몸으로 전달됐다. 그는 절박함에 쫓기고 있었다. 불안해했다.

“내려가야 한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지부에선 막판까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했고요. 저로서는 그럴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고 생각했어요. 상황이 매우 악화일로로 가고 있었으니까요. 밑에 에스오에스(SOS)를 치고 ‘곧 내려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지부는 여전히 ‘내가 더 버텨야 하는 것 아니냐. 더 버틸 수 없냐’고 하더군요. 그때 제가 감정이 확 돌아서서 ‘내가 죽어서 내려가는 꼴 볼래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은 내려오면서도 되게 비참했어요.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 상황이 악화된 건 언제부터였나요?

“창근씨도 역시 마힌드라 회장이 다녀간 뒤였어요. 그 이후에 창근씨가 사람들이랑 통화하는 걸 들으면서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감정이 고양되고, 급기야 거친 말을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실은 이전까지 창근씨가 아픈 줄 저도 잘 몰랐어요. 이전에는 사람을 챙기는 것보다 투쟁을 잘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 내려와서 지부와는 얘기를 좀 하셨나요?

“김득중 지부장이나 임원들에겐 이야기를 했지요. ‘솔직히 힘들었다. 서운했다. 서운한 것보다 더했다.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과 조직이,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더니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 고립된 고공농성이 모든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붙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투쟁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열심히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젠 투쟁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사회가 잘 보듬어줘야 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쯤 이야기를 해야 한다 싶었어요.”

○ 무슨 이야기인가요?

“고공농성이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고공농성, 사람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마치 이렇게만 투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아니잖아요. 막상 해 보니까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으로, 그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싸우게 하니까요. 그런 건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또다른 고문이에요. 언론에서 차광호씨 최장 기간 고공농성에 대해 ‘슬픈 신기록’이란 타이틀을 달았던데,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다고 박수쳐주고 더 응원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모든 투쟁의 부담이 오롯이 그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분노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회가 책임져야 할 몫인데.”

그의 눈시울이 또 붉게 물들었다.

“저도 굴뚝에 오르는 순간 ‘내가 이 사다리를 타고 다시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굴뚝에 올라서서 보니까 저와 창근씨는 계속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저도 보통 사람이니까, 굳건한 모습만이 아니라 아픈 모습과 힘들어하는 모습을 편하게 가감없이 보여줘야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창근씨는 생각이 달랐어요. 창근씨는 집중적으로 뭘 만들어보려고 하고, 굴뚝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만들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 굴뚝에서 내려오면 모든 게 끝난다 생각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돌아보면, 결국 창근씨도 지금과 같은 투쟁의 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했거든요. 창근씨는 간절하게 그 일상을 회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르게 표현됐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창근씨나 저나 같은 거죠. 그래서 창근씨의 상태를 그냥 본인 문제로만 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잘 보호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 이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속해 있는 지부의 범위보다 더 큰 규모의 공동체죠. 우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힘겹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투쟁도 투쟁이지만 다르게 연대하고 다르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요.”

긴 인터뷰가 끝나자 김정옥은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말은 이랬다. “우리도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버려졌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함께 살자’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요.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여지없이 마지막 말은 ‘미안하다’였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미안하다는 김정옥의 말은 함께 살자는 말이다. 굴뚝과 세상이 남긴 상처에도, 김정옥은 먼저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었다.